

# 대통령은 묵묵부답, 이 대표는 동문서답

태평로



황대진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말수가 적은 편이 아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이야기하기를 즐기고 자기주장도 강하다. 이제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달변이다. 한때 '사이아'라 별명까지 얻었다. 그런 두 사람이 요즘 국민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답, 듣고 싶은 말을 피하기 때문이다.

씨카 문제인·노무현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글을 작성한 '해경궁 김씨'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부정부패에나 관심 가져 달라"고 답했다. 그러다 김해경씨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터지자 "김건희씨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고 했다. 대장동 의혹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물으면 "국민의힘 의원수사는 어떻게 돼가느냐"고 반문했다. "당신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묻는데 "저 사람은 잘못 없느냐"고 되묻는다. 이 대표의 무고죄 전과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尹, 김 여사 의혹에 침묵  
李, 사사건건 영동한 답변  
국민 의구심 계속 외면하면  
대신 해소해줄 사람 찾을 것

윤 대통령은 평소 거침없는 화법으로 유명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처가 문제가 나오면 입을 닫는다. 작년 7월 장모가 법정구속됐을 때 윤 대통령은 침묵했다. 곧이어 처남이 기소됐을 때도 그랬다. 이번엔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도 두 달이 넘도록 아무 말이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김 여사의 허위 경력 논란이 불거지자 팩트 체크가 먼저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자체만으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명품 가방 문제는 친북 목사와 친야 성향 유튜브 매체가 짜고 벌인 함정 몰래카메라란 사실을 국민이 다 안다. 솔직하게 설명하고 겸허히 사과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리 없다. 임기가 3년 남게 남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더 이상 손상되는 것은 국민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동문서답과 묵묵부답은 둘 다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데서 나오는 행동이다. 동문서답은 상대를 무시하고 화제를 적극적으로 다른 무기로 돌리는 것이다. 거짓이 보태질 수도 있다. 묵묵부답은 소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은 아니지만 믿음을 감추고 싶은 것이다. 이 대표의 동문서답은 국민에게 모멸감을 주고, 대통령의 묵묵부답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지금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상당 부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하고, 윤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믿어야 한다.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정치인은 유리한 이슈에 올라탈 때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했을 때 진기가 드러난다. 국민은 공정한 말, 듣고 싶은 말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게서 직접 듣고 싶어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을 대신 해줄 누군가를 찾아 나설 것이다.

김준의 맛과 섬 [175]

## 영상포 흥어

오랜만에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나주 영상포 흥어 집을 다녀왔다. 흥어탕이 그리웠다. 어머니는 귀한 흥어 대신 가오리 무침을 골라 주셨다. 그런 날이면 양은 주전자와 술도 술도 달랠야 했다. 술값은 수매하면 아버지가 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외상 장부에 꼭 눌러 적어두고 왔다.

장 중이었다. 국산 흥어라는 말에 원삼지를 물었다니, '연평도에서 왔어요'라고 했다. 너무 반가웠다. 연평도 옥중동 마을에서 흥어잡이 어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그는 한때 흑산도까지 내려가 흥어를 잡았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흑산도 흥어잡이 어업'도 인천 지역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연평도 일대에서도 흥어가 많이 서식하고 많이 잡힌다. 하지만 흥어는 전라도에서 즐기는 음식으로 흥어값도 후했다. 대청도에서 잡힌 흥어가 수도권이라는 소비처가 있음에도 번거롭게 영상포까지 육로로 이동하는 이유이다. 영상포에서 숙성된 흥어는 전라도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유통된다.



'흥어는 뱀새가 보약'이라는 말을 만들었을까. 그다음 허플과 입안에서 느낀다. 먹고 나서 쿡쿡멍으로 뿔어져 나오는 '뽕 뿔린다'는 느낌이 세 번째다. 마지막으로 몸이 오싹하며 심한 사람은 닭살이 돋기도 한다. 이렇게 즐겨야 흥어를 제대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맛을 즐기고 싶다면 흑산도보다는 영상포 흥어가 제격이다. 흑산도에서 영상포까지 달포에 걸쳐 옮겨지면서 가마니와 향이리에 담겨 만들어진 독특한 맛이다. 영상포 흥어는 이렇게 거리와 시간과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 낸 맛이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점심을 먹고 흥어를 사려고 가게에 들어섰다. 설을 맞아 주문한 흥어를 포

## 社說

### 병력 감소 국가 위기, 병력 확충 방안 논의 절박하다

개혁신당이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교정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병역을 지러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대표는 "시험에서 한두 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 1~2년 군 복무 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지원 자격으로 두는 것"이라며 "병역 수행이 어려운 일부는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 앞서 금태섭·류호정 전 의원이 만든 신당 '새로운선택'도 남녀 병역 평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 성별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여성 징병제까지 논의해 보자고 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침묵해 온 병력 지원 갈소 대책을 신당이 먼저 들고나왔다. 찬반이 첨예하겠지만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공론화한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국 해마스를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압도적 병력 때 때문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첨단 군사력을 가진 미군이 130만명 넘는 병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됐다.

우리아나 출신을 보면 병력 자원 감소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2023년 현재 우리 지상군이 36만여 명이고 북한이 110만여 명이다. 10년 뒤 우리 육군은 29만명, 20년 뒤엔 19만여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 북한은 그때도 육군 100만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10년 뒤엔 3배, 20년 뒤엔 5배 많은 적을 맞아 어떻게 전선을 지킬 수 있겠나. 드론과 AI 등을 활용해 병력 부족을 메운다고 하지만 인간 병력은 전쟁에서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승패의 기본 요소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고전하는 것도, 처음에 기습당한 이스라엘이 결

핵무기를 수십 기 가진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한다. 이런 위협에 맞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 정치인이라면 병력 지원 급감 사태를 걱정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병력을 늘리려면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거나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왔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포퓰리즘 장난을 쳐왔다. 현 18개월 복무 기간으로는 기본적인 군 지식과 기량을 숙달하기도 어렵다. 조금 익숙할 만하면 전역이다.

이제 여성 군 복무도 논의해 볼 때가 됐다. 문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병역은 남성의 책임이었고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이미 우리 군에는 여군이 1만5000여 명 근무 중이다. 전차 조종, 특전사는 물론 금녀의 벽이었던 잠수함 근무까지 한다. 여성도 행정 지원이나 드론 조종 같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여성 징병제가 어렵다면 여성 병사 모병제부터 실시할 수 있다. 지금 여군은 장교나 부사관만 뽑는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국정 책임을 느낀다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李 대표 걸리는 '음주 운전' '증오 발언' 공천 기준서 제외, 예상대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9일 4·10 총선 공천 심사에서 부패·성범죄·납세 및 병역·직장 갑질·학교 폭력 등 5개 항목의 도덕성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컷오프 기준으로 삼겠다"며 발표했다던 5대 혐오 범죄 '성범죄·음주 운전·직장 갑질·학교 폭력·증오 발언'에서 음주 운전과 증오 발언이 제외됐다. 예상대로다. 국민 의견 수렴 결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행적 때문일 것이다.

게 비판적인 사람들을 개에 비유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이 5대 혐오 범죄를 발표했다 때도 항목 선정 및 적용 시점 등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교묘하게 조정됐다는 뒷말이 나왔다. 그런데 그 기준마저도 글자 그대로 적용하면, 이 대표를 공천 적격자로 분류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공천위가 도덕성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국민 여론'을 앞서워 바꾼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이 대표는 2004년 성남시에서 만취 상태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0.158%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2001년 있었던 0.1% 이상 음주 운전"을 장관 결격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도 결격자다. 이 대표는 또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옥살을 자신의 형수에게 여러 차례 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남아 있다. 너무 저속하고 끔찍한 말들이어서 어떤 언론도 쓸 엄두를 못 냈다.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자신에

이미 4차례 전과를 가진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에서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사건, 성남FC 사건에서 배임, 제3자 뇌물 등의 혐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교사 혐의, 선거법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매수 재판정에 출두하고 있다. 민주당이 새로 1순위 결격 순위로 올려 놓은 '부패'에서 이 대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 없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관없다'고 할 것이다.

### 재판 지연 간첩 피고인들 무단 퇴장, 방치한 판사 탓 크다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25분 만에 무단 퇴장했다. 자신들의 요구를 재판장인 진재경 부장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과 피고인이 단체로 나가 버린 것이다. "퇴장을 불허한다"는 재판장 명령도 무시해 버렸다. 감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진 판사는 그냥 지켜봤다. 법정 권위를 무너뜨린 변호인과 피고인의 안하무인 행태도 문제지만 이를 방치한 판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책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 사건은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작년 4월 기소된 피고인들은 재판 한번 안 받고 작년 9월 다 석방됐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고·재항고를 반복했다.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나왔고, 그 사이 재판은 중단됐다. 6개월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못 끝내면 피고인을 석방하게 돼 있다. 그 법을 이용해 사범을 농락하는데 판사가 막지 못했다. 9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나가 버리는데도 무력했다.

피고인들은 신분 확인도 거부했다. 마스크를 쓰고 나온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벗고 일어서 달라고 하자 변호인이 재판장에게 "판사님이 와서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했다. 결국 검찰이 신분증을 대신 확인했다. 민변 출신인 이 변호인은 2011년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한 간첩단인 '왕재산'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가 핵심 증인에게 목베린 행사를 증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던 사람이다. 그런 변호인에게 판사가 속수무

진 판사는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도 두 달 만에 첫 정식 재판을 잡았고, 피고인들이 무단 퇴장한 뒤 다음 재판도 한 달 뒤로 잡았다. 진 판사는 다음 달 법원 인사 때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판하는 척 시늉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른 간첩단 사건도 마찬가지다. 간첩 피고인들 재판 농락을 판사들이 돕고 있다.

## 尹·韓은 손잡고, 모든 반전체주의 계열 만나고 악수하고 연대하라

[자유대한민국 세력 vs 반(反) 대한민국 세력] 패배하면, [히틀러 + 스탈린] 암흑 세상 [기회주의 어중간파 + 내부 총질꾼] 이간질 극성... 돌아나선 안대

### 갈등 통합, 이젠 출정(出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9일 만났다. 언론은 '야적도 갈등이 더 남아있지만'어찌고 한다. 싸우길 바라는 논치다.

그러나 이제부터 [국민의힘 + 계약 자유 세력 + 전체 자유 국민]은, 4.10 총선 승리를 향해 대동단결, 총질기해야 한다.

4.10 총선은 무엇을 하자는 싸움인가?

국내적으로는, [대한민국 세력]이 반(反) 대한민국 세력을 쳐 이기자는 싸움이다.

### 자유대한민국의 적(敵)은 누군가?

반(反) 대한민국 세력은 누구인가?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 윤석열 대통령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그들." -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들은 '민주노총당, 반(反) 기업당, 친중-친북당.'" - 왕년의 학생운동가, 오늘의 자유 전사(戰士) 함운경 유튜브

"염치조차 상실한 낡은 진보의 의무를 벗어야." - 한석호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조선일보 <김윤덕이 만난 사람들>)

### '중간파'와 '내부 총질꾼'의 '이간질 공작'

이 주적인, [기회주의 어중간파 + 내부 총질꾼]들이 합세해 있다.

이들은 좌파가 아니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섰다. 가짜 뉴스를 날조한 일부 언론도 그랬다.

그들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간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허수아비 만들고, 한동훈 위원장을 깔들여 한다.

### '대한민국 세력'은 힘 합쳐야

국제적으로는 이 싸움은, [세계 자유 진영]이 [북-중-러-우-러시아 전체주의 진영]의 팽창을 막자는 싸움이다.

[대한민국 세력] 각파는 물론,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때로는 충돌할 수도 있다. 그러나 4.10 총선에서만은, 주적 앞에서 [힘을 힘] 합쳐야 한다.

### 4.10 지면, '히틀러 + 스탈린' 세상

어떻게 합칠 것인가? 반(反) 전체주의 정신으로!

전체주의란 무엇인가? 2차 대전 직전 [히틀러 + 스탈린]은 [불가침조약]을 맺으려 했다. 다행히 깨졌지만, 이 둘이 합치면 이게 곧 [전체주의 자유]이다.

상상해보라. 세상이 온통 [아우슈비츠 수용소 + 시베리아 수용소]처럼 될 때, 그 암흑과 고통과 자유의 어떤 것인지 묻!

### 비틀트 필레츠키를 기억하라

매년 8월 23일은, 유럽의회가 지명한 [검은 리본의 날] [반(反) 전체주의의 날]이다.

전체주의 폭압에 항거하다가 희생당한 영웅들을 기리는 날이다.

예컨대 폴란드(PO) 장교 비틀트 필레츠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의도적으로 잡혀갔다. 그곳의 나치 만행을 밖으로 적어 보냈다. 나치 패망 후엔, 소련 점령군에 협조하길 거부했다. 행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 세력]이 비틀트 필레츠키의 10분의 1 만큼의 자유 후손이라도 쏟아냈다면, 대한민국은 능히 살아남을 것이다.

일어서 가자, 자유인들, 우리 승리하리라!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이광승 칼럼  
'영부인 윤가'에 대한 국민 감정의 위기는 영터리

류근일 칼럼  
김명수 '정치 사범부, 문재인' 운동권 정권 시너였다

이광승 칼럼  
좌파 구원부수 김경유의 폭무 - 좌파적 정찰대 대선 감독 향해 공 던졌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1월 28일 게재 되었습니다.